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25일 수요일 음 3월 2일 (9물)

기상정보

호리고 한때 비

오전	강수 확률	오후
0%	제주	30%
0%	성산	60%
0%	고산	60%
0%	서귀포	60%

해돋이 06:31	달몰림 07:10
해진 18:49	달짐 19:34
만조 11:26	간조 05:37
23:38	17:54

주간예보

<문의 063-2828131>

내일	호리고 비	13/20°C
모레	호리고 비	15/16°C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동남극 덴먼 빙하 22년간 5km 후퇴

해수면 상승 실질적 위험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져 온 동남극의 덴먼(Denman) 빙하가 지난 22년간 5km 가까이 '후퇴'했으며, 빙하 밀지형이 기후변화에 빙하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먼 빙하가 모두 녹으면 지구의 해수면을 1.5m가량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교(UCI)와 제트추진연구소(JPL)는 지구물리학회(AGU) 저널인 '지구물리학회지'에 최신호를 통해 발표했다.

UCI에 따르면 덴먼 빙하는 1979년부터 2017년 사이 누적 얼음 손실량이 총 2680억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996년부터 2018년 사이 덴먼 빙하의 육지를 덮은 얼음인 빙상의 육지-바다 접점 지반선 후퇴가 비대칭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덴먼 빙하 동쪽 측면은 빙하

남극 동부 덴먼 빙하.

밀의 융기부가 빙하의 후퇴를 저지하는 역할을 한 반면 서쪽 측면은 깊고 가파른 골이 경사져 있어 빙하 후퇴를 가속하는 역할을 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덴먼 빙설은 매년 3m씩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측정돼 서남극의 빙봉보다도 붕괴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리그닛 교수는 "덴먼 빙하의 엄청난 크기는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 총격이 그만큼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덴먼 인근 해양자료와 지반선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건강&생활

이 소 영

정신과 전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휩쓸면서 각국이 혼란에 빠졌다. 여기 미국은 초기 방역과 대비에 실패한 탓에 오늘도 무서운 속도로 감염자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걱정과 두려움은 더 빠르게 확산하는 중이다.

한국에서 지역 사회 감염은 종교 단체와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관련된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수와 놀라운 전파력으로 언론의 관심이 종교에 쏠린 동안, 병원의 집단 감염 사례는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않고 지나갔다.

청도 대남병원. 공식적으로 알려

기억해야 할 그 병동

진 것이 많지 않은 이 곳은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정신과 환자들과 노인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종교로 인한 집단 감염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면, 장기 입원 시설들의 감염 취약성은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 전국에 무수히 자리한 유사한 시설들이 언제든 또 다른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오히려 더 면밀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정신과 환자 중 일부는 어떤 약이나 정신 치료로도 증상 완화가 쉽지 않아 가정이나 사회에서 돌볼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의료 시설에 몇 달, 몇 년, 혹은 무기한의 장기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데 막대한 비용과 자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항

상 부족하다. 그래서 입원 환경은 종종 열악해지지만, 환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거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다보니 환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잦다. 가족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사회는 이런 환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닫힌 문 너머에서 조용히 잊혀지곤 한다.

미국의 경우 정신과 장기 병동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 하에 지난 수십년 간 많은 병동들을 없애왔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 입원을 요하는 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구하지 못한 그늘도 많다. 직접 청도 대남병원의 실태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존재하는 수 많은 장기 병동들 중의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모습을 짐작하기가 어렵지는 않다. 집단 생

활을 하는데다, 감염병 혹은 그 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개념 자체를 배울 수 없고, 증상이 있어도 증상을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우리 환자들,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희생됐을 그 분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하다. 미국에서도 장기 입원 병동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맞아 떨어지는 종이라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 와중에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은 제주에서는 아직 지역 사회 감염이 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를 지켰으면 좋겠다. 또한, 이 혼란 속에서 가장 큰 피해는 가장 약한 계층이 입는다는 점을 부디 기억하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어 짚어지는 따뜻한 마음이 병으로 인한 두려움에 막히지 않기를 바란다.

열린마당

위생영업 변경신고는 비대면 '정부24'로

한 봉 석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호평받고 있는 가운데, 위생영업 변경신고 등 온라인 민원 처리도 비대면이 가능한 '정부24(www.gov.kr)'가 있다.

위생영업 관련 영업변경 신고나 영업신고증 재교부, 폐업 시 시청을 직접 방문해 민원신청을 했으나, 지금은 가정에서도 위생영업 변경신고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이용은 온라인에서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어, 민원명(예:공중폐업)을 작성 후 검색,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은 필수다.

민원처리 가능한 식품위생 민원은 상호변경, 법인대표자 변경 등이며 해

서해수호의 날 제5주년 즈음해

김 달 수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장

3월 넷째 금요일은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서해수호의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을 3월 넷째 금요일로 법정기념일을 제정한 이유는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6명 전사),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46명 전사), 연평도 포격도발(2010년 11월 23일, 2명 전사) 등 북한의 서해 도발 중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정부기념식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향군인회와 호국보훈안보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기념식을 가져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3월 27일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으로 취소됐지만, 도민과 회원은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마음으로 되새겨야 하겠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고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최근까지 3000여회의 대남침투와 도발, 여섯차례의 핵실험, 150여회의 미사일 실험과 발사 등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해 오고 있다.

특히 우려할 사항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 지난 3월 2일과 9일 동해상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최근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5회 서해수호의 날'에 즈음해 우리의 안보의식을 결집해야 할 시기이다. 6·25전쟁 발발 70주년, 천안함 피습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믿음직한 울타리가 되는 제2안보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불에 타지않는

준불연 스티로폼 쉴보드

제주총판 그랜드 OPEN

시형성적서 보유

ISO 9001, ISO 14001 특허증 보유

쉴보드의 특징

준불연 제품, 열경화성제품, 열전도율 0.034, 적은흡수율, 우수한 단열성, 뛰어난 가성비. 효율적인 보온성능. 환경친화성

기존 보온비드법 시공과 동일 600*1200으로 시공 간편

흑연 EPS보드 연소시험

연소 전

발화 3초후

발화 5초후

연소 후

쉴보드(SHIELDBOARD)와 S보드 연소시험

연소 전

발화 1분후
표면 탄소화
수축과 변형이 없음

5분후 표면탄소화층
화염을 지지,
수축과 변형 없음

연소 후

쉴보드 제주총판 우영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63
전화 739-8118 팩스 739-9228, 010-6337-3047 메일주소 : wy9724@naver.com